

STAR CRAFT II

HEART OF THE SWARM



전투 건설로봇

칼-엘 보그다노브

"흰둥이" 빌 부스케트는 이전 전쟁 때 복무를 시작한 첫 주부터 주기적으로 그랬듯이 뒷덜미가 가려웠다. 부스케트는, 한결같은 고지대 날씨로 여행 안내서에서 소위 "누 문시코"라고 일컫는 황폐한 암반 지역 초스에서 성장했다. "흰둥이"는 부유한 이들이 가족과 정부들을 따사로운 햇빛으로 데려나가 사치를 만끽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런 우아한 삶을 꿈꾸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초스에서의 실외 활동은 흰둥이에게 시커멓고 건조한 가죽 같은 목덜미를 남겼다. 개처럼 일할 때에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은 부위에서조차 땀이 비처럼 쏟아졌다. 복무 중 절반 가량의 시간은 빈 깡통에 갇힌 채 더 큰 깡통에 내던져져 빛과 공기는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다. T-280 우주 건설 차량 안의 교합기는 흰둥이의 목을 땀에 적셨고, 그 땀을 증발시킬 햇빛과 바람이 없는 한 하루 일과가 끝날 때 즈음에는 땀에 젖은 목은 가려운 목이 되었다. 흰둥이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그가 격분할수록 가려움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이었고, 그의 부하들이 스크린 화면 주변에 모여 열을 올리는 지금, 그의 목은 미친 듯이 가려웠다.

"매트는 잊자고. 이런 빌어먹을 프로토스 땅덩이에서 애당초 그걸 어떻게 만들란 말이냐고. 250 미터 간격으로 떨어져, 2 인승 공성 전차를 지탱하는 접이식 브릿지를 말아야. 게다가 완전 무장 상태로 수송선에 실릴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야 한다고? 제길!"

"참치" 바이고 자크가 말했다. 자크는 땅 위에서는 기중기 전문가, 우주에서는 은퇴를 꿈꾸는 운명론자였다. "투덜이" 추이텔 소로가 동의하듯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흰둥이는 자신의 건설로봇이 웅웅거리게 둔 채로 연구를 거듭하고 머릿속으로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흰둥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젊지 않았다. 그 중 가장 젊은 이의 얼굴조차 중년의 회색 머리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레이너는 흰둥이가 이 무모한 집단을 꾸리기 시작했을 때 젊은이들을 흰둥이에게 보내주려 노력했다. 레이너는 우모자 중앙 대학에서 가장 총명한 인재들을(적어도 자치령과 우모자, 컴바인이 인력을 충원한 뒤에는) 흰둥이에게 보내줬다. 이런 인재들은 온갖 이론으로 박식했지만, 모형보다 큰 그 무엇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너무 풋내기인 나머지 처음 총성을 듣자마자 용접기를 바닥에 떨어트려버렸다. 레이너 특공대는 적이 남긴 자원으로 악독한 자치령에 맞서 싸우는 반란군이었다. 그들의 병력과 화력은 항상 열세였고 시간조차 부족했음에도, 짐 레이너는 그들을 패배보다는 승리로 더 많이 이끌었다.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레이너에게는 전장의 포화 속에서조차 작업물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무기를 들고 싸우면서도 속이 뒤집힐 공학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건설로봇 조종사들이 필요했다. 레이너는, 소총 탄환이 불규칙적으로 자신의 T-280 뒤에 박혀대는 상황에서도 화염차 용접 작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준 흰둥이를 이 미치광이 집단의 리더로 선발했다. 흰둥이가 레이너에게 자기 군대에 편성된 모든 이가 작업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그들을 전부 해고하고 병력을 새로 모집하는 동안 레이너는 인내심을 발휘할 수 밖에 없었다.

어쨌든 흰둥이는 병력을 새로 모집했다. 흰둥이에게 필요했던 건 오래된 전투 식량에 들은 10 등급 디저트 케이크처럼 역세고 질기면서도 진지한 전문 상인들이었다. 흰둥이는 스스로를 잘 아는 단순 무식한 이들이 30 명 필요했고 바로 그들을 찾아 나섰다. 그는 항구와 건설 현장(과 상당수의 술집)을 돌아다녔고 자기처럼 공학 학위가 있는 기사부터, 무더운 날 농어가 언덕 위로 헤엄치게도 만들 수 있는 독학 배관공까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끌어 모았다.

그들 중에는 해병들의 평균 연령만큼이라도 젊은 이가 하나도 없었고 셋 중 둘은 이미 오래 전 전쟁에서 아이어로 징집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런 사실 때문에 해병들 사이에선 "건설로봇을 존중해라. 우리 아버지 친구이실 수 있으니!"란 농담이 유행했다. 그런 조롱은 특공대원 모두가 밴시 2 기의 폭격에 몸을 숨긴 동안 건설로봇들이 사령부와 벙커 6 개를 건설하는 모습을 볼 때까지 계속됐다. 그 뒤론 건설로봇은 대부분 성질 더러운 얼간이이며 과거 지구에서는 인내심 강한 학부모에 불과했을 거란 얘기들은 모두 무의미해졌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들은 한여름 오후에 지옥에서 악마의 불덩이 공격을 받으면서도 눈으로 요새를 지을 수 있는 이들이었다.

아마 그래서 그들이 프라이드워터 행성의 아낙네들처럼 투덜대는 모습에 흰둥이는 목이 가려웠을 것이다. 그들이 투덜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사실을 흰둥이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선입 용접공 스테글리츠가 편지를 받은 화요일 아침부터 괴팍해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건설로봇 조종사들처럼 스테글리츠에게는 세 아들과 인내심 강한 아내가 기다리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편지는 맏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비보였다. 불타는 사명감으로 행성 방위대에 합류한 스테글리츠의 맏아들은 대기권 밖에서 벌어진 저그와의 소규모 접전 중 아군의 포격으로 황천길에 올랐다.

화요일 오후, 스테글리츠는 그 동안 공들여 만든 까마귀 조각상을 값비싼 쓰레기 덩어리로 산산조각 내고 있었고, 투덜이와 파텔이 간신히 그를 용접기에서 떼어낼 수 있었다.

젊은 보병들이 전투 식량이나 잠자리에 불만을 터트릴 때조차 건설로봇 조종사들은 식량을 양보하고 배개도 덜 사용했다. 하지만 스테글리츠에게 편지가 도착한 후론 그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흰둥이는 아내와 이제 다 큰 두 아들을 떠올렸다. 그들이 스테글리츠의 아들보다 딱히 덜 취약한 것도 아니어서, 흰둥이에게 떠오른 모습은 드넓은 벌판에 그들이 사방에 적들로 둘러싸인 모습이였다. 시간과 거리는 항상 그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편지 후로는 계속해서 그의 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흰둥이는 감정을 추스르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좋아, 모두 잘 들어라. 만약 내가 '불가능'이란 말을 듣고 싶었다면 자치령 정치인들을 찾아갔을 것이다. 우린 16:00 에 다시 시도한다. 세 전술 분대 모두 그때까지 수송 가능한 매트 목록을 준비해 오도록. 나머지 시간은 맘대로 사용해도 좋다. 기도를 하건, 카드 놀이를 하건. 내 알 바 아니니."

흰둥이는 대원들을 훑어봤다. 모두 몹시 지쳐서, 너무 많이 읽어 헤진 편지처럼 녹초가 되어 있었다.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좀 해야 할 대원이 있군." 몇몇 대원이 피식 웃었다. 흰둥이는 자기 배때기를 톡 치며 보냈다. "나도 그 중 하나고 말이야." 이번엔 더 많은 이가 웃었다. "해산."

흰둥이는 건설로봇 조종사들이 밀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원격 콘솔에 딸린 침필로 목을 굽어댔다. 그는 책임자였고, 이 일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로리 스완은 크고 둥근 엄지 손가락에 걸친 머그잔을 내려놨다. 그는 모든 일을 크고 둥글게 진행했다. 로리는 흰둥이가 좋아하는 느긋한 성품의 인간이었다. 본래 차분한 사람인데다 어쩌면 여태껏 단 한 번도 침묵을 깨야 할 상황에 놓인 적이 없어서였을 수도 있다.

로리는 함선의 선임 엔지니어였다. 몇 년 전, 유난히 치열한 전투로 손상된 히페리온 함선을 수리하기 위해 건설로봇 조종사들이 엔지니어들과 협력했던 때가 있었다. 흰둥이는 당시 장비와 기름에 뒤덮여 일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들을 사귀었다. 로리도 그 중 하나였다.

둘은 기질적으로는 반대였으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흰둥이는 그 이유를, 둘이 거의 같은 계급인데다, 전공 분야는 같았지만 직무가 같지는 않아서였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 온갖 불평을 실컷*

떨어놓으면서도 서로의 심기를 전혀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은 보통 로리가 사령관 짐 레이너를 "빌어먹을 능력자"라고 부르며 그와 다툼 이야기를 20 분 동안 떠들어대는 걸 의미했다.

오늘은 다를지도. 흰둥이는 로리가 코브라 습격 차량의 장점 얘기를 1000 번째로 하는 동안 생각했다. 레이너와 스완은 말다툼이 잦았지만 사실 둘은 무척 친밀했다. 지금 흰둥이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레이너가 하게끔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조언을 얻기에는 로리가 제격이었다.

스완의 지겨운 얘기가 끝나가고 있었다. "—제길, 이젠 그들이 나를 그 위성에 다시 보내줄 지도 모르겠다니까." 흰둥이는 싱긋 웃으며(이미 지겹게 들은 얘기였지만) 어떻게 자기 고민을 얘기할 지 생각했다.

"이봐, 스완..."

"음? 무슨 일인데?"

흰둥이가 술을 벌컥 들이키고 말을 이었다. "자네 결혼했나?"

스완이 껄껄댔다. "여러 번 했지. 왜? 누가 외팔이 남편을 구한대?"

흰둥이는 프레첼을 한 움큼 쥐고 스테글리츠 이야기를 털어냈다. 까마귀 조각상 얘기까지 왔을 때 스완은 우거지상이 되어 있었고, 마침내 흰둥이는 털어놓으려던 고민의 핵심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늘어진 적이 없었어. 엉덩이를 땅에 끌고 다닌 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제 슬슬 그들도 지쳐가고 있어. 쓸데없는 과민 반응을 보이고 전처럼 영리하지도 않아. 눈에 띄지 않게 변해가고 있어. 눈에 띄진 않지만 주의 깊게 보면 흑사당해서 서서히 지쳐가고 있는 게 보이지. 그들은 가족을 만나게 해. 단 몇 시간만이라도. 그들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가고 있다고."

로리가 자기의 생체 공학 팔에 달린 턱을 열었다 닫으며 말했다. "흠, 그래.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어? 제길... 함선에 탄 어린 친구들은? 그들에겐 이게 첫 전쟁이지. 젊은 친구들은 원칙대로 혹은 복수를 위해 싸우지. 때론 재미로 싸우기도 하고. 자네와 나는 아니지만."

흰둥이는 콧방귀를 꿇었다. "이런 거짓말쟁이를 봤나. 자넨 아직도 재미로 싸우잖아."

스완이 킁킁댔다. "그래, 음... 난 그럴지도. 하지만 자네 대원들은 아니야. 그들은 가족을 위해 싸우지.

자네 아무래도 레이너에게 가야겠어."

"가서 뭐라고 하라고?"

"방금 나한테 했던 얘길 해. 자네는 입이 지나치게 무거운 시골 촌뜨기 같을 때가 있단 말이야. 자네가 제일 잘 알 텐데. 카우보이를 상대할 때는 단도직입적이어야 한다는 걸. 그냥 원하는 게 뭔지 말해버려."

"부탁하는 건 질색인데."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 알려주는 거지. 레이너는 바보가 아니야.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봐. 이 절망 가득한 지옥 폭풍 속에 발버둥치는 특공대원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 당신을 믿습니다, 레이너.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말을 하지. 그리고 지금 내 앞에는 파시스트들에게 모든 걸 내주느라 지쳐버린 나머지, 자기나 그 누구의 삶을 위해서 조금도 희생할 생각이 없는 친구가 하나 서 있군. 거기서부터 시작해봐. 안에서 밖으로 나가라고. 경장갑차를 조립할 때처럼 말이야."

흰둥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자넨 낙천주의자야."

로리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자넨 요상한 괴짜지. 맨주먹으로 광전사와 맞붙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친구가, 누군가한테 열 단어를 내뱉어야 할 때면 수줍어서 죽으려고 하니까."

스완은 바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묻지 않으면 답은 부정적이야. 첫 단추는 입을 여는 거야. 나랑 한 잔만 더 하고 레이너한테 가서 죄다 털어놓으라고."

"안 돼." 레이너는 젊은 병사들이 일어나 경례를 하게 만드는, 그 무심한 확신이 담긴 말투로 말했다.

흰둥이의 손이 저절로 올라가, 목덜미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우리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 짓을 계속하려면 자원이 필요하지. 대원들 대부분은 그 자원을 다 써버린 총알로 바뀌버리느라 바쁘고. 그런데 자네 부대는 다른 분대에서 일 년 동안 손에 넣는 것보다 열두 배는 많은 자원을 구하지 않나."

"비슷한 규모의 자치령 기술 조합이 벌어들이는 것의 일곱 배죠. 운영비는 삼분의 일만 쓰면서요."

흰둥이가 말했다. "저도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짐."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레이너는 사냥칼을 꺼내들고는, 책상 구석에 있는 그릇에서 샤일로산 적갈색 사과를 꺼내 한 조각을 크게 잘라냈다. "자네들을 빼줄 수가 없네." 그는 칼끝에 꽂힌 사과를

흰둥이에게 내밀었다. 흰둥이는 놀고 있는 한 손으로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제스처를 살짝 취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레이너는 말을 이었다.

"우린 본격적으로 반란을 벌이고 있다고. 그 비용을 감당하려면 뫼비우스 자식들을 기쁘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

레이너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씹고, 삼켰다.

"지도자란 성가신 자리야. 예산 문제가 불알 두 쪽만큼 중요해질 수도 있지. 자네는 지금 이 자리에 자네가 있을 거라고 상상해본 적 있나?"

흰둥이는 생각했다. "전 제가 부자들을 위해 별장을 짓고 있을 줄 알았죠. 시간 나면 목장을 돌보고... 똥똥해지고, 손주들이 제 무릎에 기어오르고요."

"세상은 요지경이지. 안 그런가?"

레이너가 고개를 흔들었다.

"미안하네, 흰둥이. 우리는 지금 이 싸움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 안 될 일이야. 적어도 지금은."

언젠가 흰둥이가 전쟁터에서 공성 전차를 고치고 있을 때 공생충 세 마리가 나타나서 소스라친 적이 있다. 그는 아크 용접기와 엄청나게 무거운 스패너만으로 가까스로 작업을 마무리했었다. *왜 이리 쟁쟁하게 힘든 거지?*

레이너가 침묵을 깨뜨렸다. "어쨌든 잘 왔네. 어차피 임무 브리핑 때문에 오늘 한 번 부를 생각이었거든."

"저흰 이미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레이너는 미소 지었다. "이게 우선이야.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 짓지 말게..." 레이너가 데이터 칩을 전략 콘솔에 집어넣자 그 위에 텔레미터로 측정된 작은 위성의 모습이 깜박이며 나타났다. "그냥 일상적인 임무니까.":

"왕복 채취 작전이다." 흰둥이가 임무 설명을 들여다보는 대원들에게 설명했다.

"해병 지원은요?" 자크가 물었다.

"사령관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고. 이건 반란이지 댄스 파티가 아니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전선에서 끄집어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커피나 마시고 우리가 훈련 받는 모습을 지켜보게 만들지 않는 한 이 빌어먹을 팀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지. 게다가 이건 소프트볼 경기장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가서 보상을 챙겨 나오면 되는 거지."

"보상이라면...?" 투덜이가 팔짱을 끼고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그리퍼드 병장이 6 주 전에 보낸 저 탐사정들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 위성에서 귀중한 광맥을 찾아낸 거지. 브래스가 5 시경부터 통보 받았지. 우리는 묘지를 통과해 갈 것이고, 내일 아침 모든 배치를 마친다."

"귀중하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자크가 물었다. 흰둥이는 콘솔에 열쇠를 꽂아 광맥 정보를 화면에 띄워 대원들의 얼굴을 밝혀줬다.

"이럴 수가!" 투덜이가 소리쳤다.

그리퍼드의 저 조그만 뺨뺨이가 정확하다면," 자크가 보냈다. 일동의 저편에서 리암 그리퍼드(UCU 연구원으로 있다가 징집당한 탐사 지질학 교수)가 창백한 얼굴에 드리운 모래 색깔 머리를 쓸어 넘기며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끝을 마주 댔다.

"정확합니다." 그는 희미하고 건포도처럼 메마른 미소를 띠고 대답했다.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도 건드리질 않은 거지?" 투덜이가 물었다.

"그 행성은 거드라크라고 합니다. 대기 조건으로 보면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지요. 저 같은 뉴 문시코 출신으로선 생각도 하기 싫은 환경입니다. 첩보에 따르면 자치령에서 이 행성을 개척해서 난민 수용소를 건설하려고 점찍어 뒀는데 후속 작업은 없었다는군요. 땅 문서도 전혀 없고 측량 기록도 없습니다. 우리 말고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커다랗고 따뜻한 돌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흰둥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가서 우리 할 일을 해야겠군. 유일한 문제는,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 특공대는 다른 데 볼일이 있다는 것뿐이야. 우릴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긴 하겠지만, 임무가 진행 중일 때는 우리뿐이야."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닌데요, 뭐.” 자크가 투덜거리자 다들 킬킬거리며 웃었다. “알겠습니다. 전술 분대 A 에 지게로봇을 정비하라고 일러 두겠습니다.”

“저는 최소 필요 장비 목록을 작성해서 사무장들에게 넘기겠습니다.” 투덜이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흰둥이는 잠시 주저했다. “우리는 이미 할당량의 두 배가 넘는 일을 하고 있고, 처음 계약했던 것보다 파견 근무를 두 번이나 더 다녀왔지. 휴가도 없이 말이야. 그런데도 또 보통 사람들보다 두 배나 힘든 일을 하게 됐고. 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아 줬으면 한다. 이상.” 부하들은 수염이 듬성듬성 자란 턱을 긁으며 때 묻은 작업용 장화를 끌고 줄지어 나갔다. 그중 몇은 흰둥이에게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투덜이가 멈춰 서더니 낮은 소리로 말했다. “걱정할 것 없어요, 대장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대장님은 해낼 테니까요.”

투덜이는 그러더니 흰둥이의 어깨를 두드리고 서둘러 나머지 사람들을 따라 갔다. 흰둥이는 부하들이 소리가 들리는 거리를 벗어나자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지.

수송선에서 강하한 직후, 흰둥이는 아침 식사가 배속에서 체조를 하는 기분이 들었다. 강하 후에는 항상 그랬다. 다시 진짜 흠을 밟으니 마음이 놓였다. 물론 T-280 때문에 1.5 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흰둥이는 몸을 구부려 익숙한 교합기 안으로 들어갔다. 표준 교합기에는 성형 가공한 안전장치가 달려 있어, 운전자의 몸에 걸치게 되어 있었다. 교합기는 사용자의 극히 사소한 움직임까지 읽어 들여 건설로봇의 움직임으로 변환할 수 있었다. 내장된 충격 피드백 모듈(OFFM)은 충격의 강도에 비례하는 촉각 반응을 생성하여, 운전자가 거대한 기계의 육중한 팔다리가 자기 것인 양 실제와 가까운 촉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오래전 흰둥이는 어마어마한 벽촌에서 독학으로 공학을 익힌 괴팍한 기술자와 함께 계약직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 레델 쿼튼이라는 사람이었다. 둘은 구역 내에서 가장 버그가 많은 피드백 모듈을 손보면서 좋은 친구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자 둘은 밤이면 밤마다 돈만 있으면 특허를 내고 싶다며 여러 가지

고수준 개조 방법에 대해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그러던 하루, 레델이 격납고에서 양조한 술(지금까지도 흰등이가 마셔본 자가 양조주 중에 가장 센 술로 남아 있다)로 거나하게 취한 채로 흰등이는 처음으로 학습형 생체 측정 교합기의 대략적인 설계도를 그렸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건설로봇 부대를 지휘하게 된 흰등이는 그 교합기를 제작하여 부대 내의 모든 로봇에 설치하는 일에 착수했다. 교합기는 각 사용자의 신경 반응을 학습하여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켰다. 건설로봇 조종사가 로봇에 로그인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건설로봇의 반응성이 좋아지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조종사들이 자기 기계에 애착을 갖기 시작했다. 뺏속들이 카우보이인 흰등이는 초스 지역 농부들이 빈번한 연료 부족에 대비해 기르던 말들을 생각했다. 가장 아끼는 말과 친해지는 기수를 생각한 것이다.

흰등이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기계에 고물 신소재 강철을 덧대고, 추진기를 개조하고, 그 거대한 쇠덩어리를 아기 돌보듯이 돌보았다.

육지에 무사히 착륙한 흰등이는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을 굽혀 쿵쿵 땅을 디터 보고 추진기를 켜 짧은 거리를 이동해 본 후 출력 표시기도 확인했다. 그리고 기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데 만족하고는, 몸을 돌려 왼쪽에 있는 전술 모니터를 확인했다. 조종사들의 생체 신호가 그를 안심시키기라도 하듯, 붉은 점의 격자를 그리며 규칙적으로 깜박였다.

흰등이는 거드라크를 둘러보았다. 덩불이 낮게 자라는 평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평원의 동쪽은 군데군데 골짜기로 주름져 있었다. 서쪽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위의 고원으로 이어져 있었고, 남북으로 뻗은 절벽은 온통 좁고 넓은 협곡으로 갈라져 있었다. 달은 아름다웠고, 쓸쓸했다. 사막만이 연출할 수 있는 쓸쓸함이었다. 또, 날씨가 좋았다.

그래서 더 힘들었다.

“뚜껑은 닫고 일하도록. 물론 신선한 공기가 그리겠지만, 뚜껑을 열면 수분이 금방 날아가 버릴 테니까. 가뜰이나 부족한 수분이 말이지. 쾌적 공조 장치 설정을 높게 해서 땀이 나지 않게 하자고.”

과연 그런다고 땀이 안 날까. 망할 공조 장치... 시판되는 에어컨보다 별로 나올 것도 없지. 돌아가면 전술 부대 하나를 정해서 공조 장치 개조를 맡겨야겠어. 그는 백 번째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들은 빠른 속도로 사령부를 세웠다. *신기록은 아니군.* (흰둥이는 매번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라며 건설 시간을 기록해 두고 있었다.) *그래도 자치령 명칭이들보다는 훨씬 빨라.*

그들은 더 빠른 속도로 보급품을 실었고, 점심 때쯤에는 채광 작전에 착수하여 최초 채굴 지점을 선택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이 저그 덩을 작동시킨 것은 16 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짹! 하는 소리는 마치 흰둥이가 어릴 때 사냥을 하러 다니던 키하다스 외곽에서 선철 덩이 멧돼지 다리를 붙잡던 그 소리 같았다.

14 시 30 분 경에 지게로봇 한 대의 집게가 고장이 났고, 흰둥이는 자크와 A 분대를 도와 수리를 하고 있었다.

지게로봇을 이용하면 채광량을 늘릴 수 있었다. 건설로봇이라면 꼼짝도 못할 무게도 거뜰히 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게로봇은 두뇌도 본능도 없기 때문에, 흰둥이는 부하들을 붙여서 지게로봇의 단순한 연산을 보완하고 로봇을 가장 필요한 곳으로 보내도록 해 두었다.

흰둥이가 킁킁대며 고장 난 로봇의 부품을 갈고 있을 때, 예언이라도 하듯이 뒷목에 가려움이 느껴졌다.

그는 투덜대며 작업에서 손을 뗐다.

채광 현장 건너편에서 울프 하사관이 융합 절단기를 바짝 바른 암벽에 있었다. 그때 그 짹!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울프가 사라지고 그들 발밑의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얇은 천의 슬기가 순식간에 뜰어지듯, 균열은 빠른 속도로 현장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흰둥이 왼쪽에 있던 붉은 빛 중 하나가 꺼졌다. 울프가 죽은 것이다. 흰둥이의 머리는 정신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활동성 단층인가? 아니다. 그렇다기엔 너무 깔끔하다. 완벽한 원을 그리며 야영지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다. 고의적인 것이 분명하다. 누가 만들어 둔 게 분명하다!

다음 순간 저글링 한 마리가 균열에서 튀어나오더니 코르테즈(모리아의 최고급 차량 공장에서 온 금속공학자)의 조종석에 갈퀴를 박았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균열은... 꿈틀거리는 저그 갑피로 가득했다.

망할! 대형을 짜고 사령부에서 전열을—

하지만 균열은 아직도 원을 그리며 뺨어 나가고 있었다. 장비가 있는 사령부로 간다면 포위당할 것이다. 흰둥이는 현장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투덜이가 늘어선 협곡 쪽에 가장 가까운 쪽에 있었다. 빠른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다.

“조종사들! 소로 중위를 중심으로 대형을 짜라! 균열에 총을 쏘면서 협곡으로 향한다! 움직이는 건 모조리 죽인다!”

흰둥이는 교합기를 두드려 작동시켰다. 저글링들은 이미 가장자리에 있는 부하들을 덮치고 있었다. 조종사들은 침착하게 대형을 유지한 채 돌씩 짝을 지어 전술적으로 움직이면서, 저글링들을 닥치는 대로 베고 뭉개면서 좁아지는 문을 향해 미친 듯이 뛰었다. 흰둥이에게 그럴 여유가 있었다면 자랑스럽기까지 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유가 없었다. 망할 균열에서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저글링 떼에 압도당하는 건 시간문제였다. 흰둥이의 눈앞에서, 저글링 한 마리가 딛 모지안(고용 계약에 묶여 시리언의 공장에서 착취당하다가 징집된 탄도학 전문가)의 로봇에 뛰어올라 보안경 가장자리를 발톱으로 파기 시작했다. 흰둥이는 교합기를 두들겨 저글링을 한쪽 팔로 후려치고는 집게로 저글링의 머리를 붙잡았다. 집게를 최대한 강하게 조이자, OFFM 을 통해 벌레의 두개골이 터지는 것이 느껴졌다.

저글링 한 마리가 로봇의 등에 뛰어오르는 바람에 흰둥이는 펄쩍 뛰고는 자크를 향해 빙 돌아섰다. 자크는 두 사람 사이에서 꿈틀대던 다른 저글링의 흉곽을 밟아 뭉개고는 용접기를 들어올렸다. 자크가 출력을 최대로 높여 백열하는 불꽃으로 흰둥이의 등에 붙은 벌레를 날려 버리는 동안, 쉼쉼거리는 비명 소리가 통신기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울프의 빛을 따라, 네 개의 빛이 더 사라졌다. 쿵쿵거리는 로봇의 발소리에 맞추어, 흰둥이의 머릿속에서 네 사람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쿵! 큰 굽이 출신의 배관공 애덤스.

쿵! 유량하는 연구 함대에서 온 입자물리학자 고바야시.

그들은 이제 균열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최대한 많은 피해를 흡수하기 위해 지게로봇 두 대를 뒤에 남긴 채였다.

쿵! 하이퍼케이드에서 발탁된 UI 설계자 르플뢰르.

쿵! 계속 채리코프스를 위해 일하며 군용 방호 시설 데이터를 저소득 주택 건설 단체에 흘렸던 구조 설계자 응구옌.

이제 대부분의 인원이 균열을 지나왔다. 흰둥이는 뒤를 돌아보았다. 자크를 비롯한 낙오자 몇 명이 갈색의 거대한 저그 물결을 향해 플라스마를 퍼붓고 있었다.

이제 어찌지? 탁 트인 곳이라 해도 이대로라면 몇 초 만에 우릴 덮칠 거야! 흰둥이는 집게로 블레이크(UNN에서 20년을 근무하고 연금을 받고 있었던 네트워크 전문가)의 부서진 로봇을 붙잡고는 균열로 던졌다. 저그 물결이 거의 코앞에 있었다!

방법을 생각해야 해! 아니면 이대로 죽을 거야! 플라스틱 강철 용접기로 놈들을 막아서 사람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

그때 웬더스(할키온 출신의 폭파업자)가 저글링 무리에 뒤덮여 쓰러지는 모습이 흰둥이의 눈에 들어왔다. 빛이 또 하나 희미해졌다.

그는 자크 쪽을 보았다. 로봇을 뒤로 돌린 것을 보니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아니야, 설마—* 자크는 융합 절단기를 작동시키더니 웬더스의 로봇에 부착된 커다란 폭발물 꾸러미에 날을 가져다 댔다. 멀리서, 자크는 흰둥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짧은 시간에 흰둥이는 부질없이 낮은 소리를 내지를 뿐이었다.

“안 돼—”

그리고 현장이 통째로 불꽃 구름에 휩싸였다. 폭발의 충격으로 흰둥이의 로봇이 날아가 후퇴 중이던 다른 로봇 두 대에 부딪혔다. 그는 잠시 그대로 누워, 고개를 흔들며 머리를 뒤흔드는 메아리를 떨치려고 애썼다.

흰둥이는 두 발로 섰다. 자크가 시간을 좀 벌여 주었지만, 기껏해야 1분 정도일 것이었다. 움직여야 한다—

“복서미서, 가장 좁은 협곡 안으로 간다! 좌표는 HUD에서 확인하도록! *이동하라!*”

밤이 내려왔을 즈음에야 흰둥이는 마음을 놓고 부대에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저그가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협곡에 도달할 수 있었다. 건설로봇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벌레들은 굳이 쫓아오지는 않았다. 잠잠하고 바람이 없는 날씨 덕분에 기름 냄새가 퍼지지 않아, 자기들을 추적하기 힘들었으리라는 걸 흰둥이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운이 좋았다.

고원 깊숙한 곳에서 구불구불한 골목을 지나치며, 그들은 협곡 양쪽이 계단처럼 생긴 높은 절벽인 것을 알았다. 협곡에서 밖으로 통하는 길은 좁은 입구 두 곳뿐이었다. *여기면 다른 데처럼 안전하겠지.*

흰둥이는 생각하고, 명령을 내렸다.

대원들은 멈춰섰다. 흰둥이는 그리퍼드에게 통하는 통신 채널을 열었다. "리암, 최대한 빨리 이 협곡의 자세한 3-D 지도를 보내줘."

"알겠습니다, 대장님." 바로 작업에 착수하는지 작게 뽁뽁거리는 소리에 이어 그가 대답했다. 흰둥이는 끄덕이고 다른 대원들에게 돌아섰다.

"자, 정렬."

대원들은 지친 듯, 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정렬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을 잃었다. 이 행군 때문에 모두 녹초가 됐고. 하지만 쉬기 전에 너희들한테 바라는 게 있다."

"아까 그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티라도 행성 출신의 수송대장인 에디 라임즈였다.

"덧이야." 투덜이가 내뱉었다. "난 딱 보면 덧인 줄 안다고. 우리 자치령 개들의 먹이감이 된 거야. 안 그래? 죽창이 잔뜩 꽂힌 구덩이에 채광하라고 던져진 거지."

라임즈가 힘겹게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놈들이 어떻게 알아? 우리가 거기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냐고?!"

"놈들은 몰랐어."

3년 동안 특수 연구부에서 대 생물공학 전략 연구를 했던 데이브 워너였다.

"우릴 노리고 놓은 덧이 아니야. 딱히 누굴 노리고 놓은 덧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올지도 모르겠군. 딱딱한 껍질에 싸여서 기어 다니는 생물이 아닌 다른 아무나 노리고 놓은 덧이라고 할 수 있지. 특수 연구부에서 보고서 본 적이 있어. *철사 덧*이라 불렀는데, 기본적으로, 풍부한 광물을 발견한 저그가 그걸 캐는 대신에 땅속에 파고들어가서 점막으로 동굴을 채우고, 짧은 동면에 들어간다는 거야. 연못의 개구리들처럼.

"헛소리 하지 마! 개구리는 땅 위로 갑자기 튀어나와서 널 찢어발기지 않는다고!"

그 정도면 충분했다. 흰둥이는 근처의 바위 위로 뛰어올라 고함쳤다. "모두 입 닥쳐!"

조종사들은 그렇게 했다.

흰둥이는 한숨을 쉬었다. "좋은 말로 포장하진 않겠다. 우리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 일단, 우리 꼭 필요한 것만 지닌 상태로 작업을 시작했지. 이제 우리 물과 음식은 죽음의 덫 한가운데에 있다. 여긴 히페리온의 통신 범위 바깥이고, 앞으로 이 주 동안 히페리온은 여기 오지 않을 거야. 현재 수중에 있는 보급품으로는..."

흰둥이는 입을 다물었고, 그리퍼드가 대신 말을 끝맺었다.

"턱도 없죠."

"그래... 그러니까 뭔가 묘안을 내 봐."

모두 침묵에 빠져들었다. 건설로봇 조종사들에게 묘안을 요청하고 되려 감당 못하게 많은 답을 얻어 고민에 빠지지 않기엔 처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묘안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했다. 지도력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했다. 영감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흰둥이는 스완의 말을 떠올렸다.

한 번에 열 단어 이상은 말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 영감을 받다니. 나 원 참. 빌어먹을.

그리고 흰둥이는 과 린앤과 두 아들을 생각했다. 온 마음을 기울여 생각했다.

첫 단추는 입을 여는 거야.

"좋아." 흰둥이는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면서 입을 열었다. "모두 집중... "

건설로봇들은 귀를 기울였다.

"난 이걸... 이걸...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문제로 본다. 위험한 물건을 수송하는 문제. 자원 관리 문제. 이걸..."

"배관 문제요." 투덜이가 대신 말했다.

"그래!" 흰둥이는 말했다. "그것도 아주 지저분한. 생각해 보라고. 쓰레기가 수도관을 막았고, 우리 그걸 어딘가 다른 데로 흘려보내야 해. 그래서,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지?"

"에, 일단 우리 모두 거대한 건설 기계 안에 있죠." 그리퍼드가 끼어들었다. "꽤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건설로봇으로 뭘 하지? 말해보라고!"

"보통은 이것저것 건설하죠. 하지만 지금은 자재가 없어요." 라임즈가 말했다.

흰둥이는 목덜미를 긁적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튕겼다.

"없긴 왜 없어. 초스에 있는 내 걸작품을 못 본 게지."

라임즈는 잠깐 동안 뒤쪽을 응시하고는, 웃음을 터트렸다. "절벽이요. 대장님이랑 그 멋진 자식들이 절벽에다가 온갖 것을 찢죠..."

"리조트 하나를 찢지. 말 그대로 수직 도시를 찢어." 흰둥이가 말했다. "들어 봐, 이 얼간이들아." 그는 협곡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우린 지금 커다란 건설 자재 한가운데 서 있는 거라고. 저 꿈틀거리는 개자식들이, *자기들이* 밧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겠다? 이 구역에서 별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고약한 렌치잡이들을 상대로 말이야!"

흰둥이는 뒤돌아서 대원들 사이로 걸어갔다.

"너흰 지쳤다. 나도 지쳤다. 뛰느라 지쳤고, 오십 년 동안 짐 나르는 것도 지쳤고, 연합이랑 자치령이 내 세상을 피 흘리게 하는 데에도 지쳤고, 빌어먹을 두 번의 전쟁에도 지쳤어! 난 지쳤고, 아주 화가 나서 돌아버릴 지경이고, 너희도 아마 그럴 거다. 왜냐하면 이 구역의 어느 유닛도 짊어지지 않은 고약한 짐을 다시 한 번 지게 됐으니까! 하지만 그거 아냐? 난 기쁘다. 내가 돌아가면... 내 두 아들에게, 집에, 아내에게 돌아갔을 때에는, 오늘 이 협곡에 있지 않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걸 얻어냈을 테니까.

피곤한가? 좋아! 화났나? 더 좋지. 피곤하고 화나고 더럽고 배고픈 건설로봇 하나는 여덟 시간 폭 자고 삼시 세 끼 다 챙겨먹는 병사 열 명만큼이나 가치가 있다. 우린 손가락을 가지고 벅커를 파주지.

나뭇가지를 가지고 요새를 지어 줘! 이 크고 쓸쓸한 구멍을 가지고, 우리는 저 벌레들을 납작하게 만들어줄, 놈들이 죽는 걸 더 감상할 수 있게 수가 훨씬 많길 바라게 될 만큼 무시무시한 죽음의 기계를 만들 거다. 그리고 내 약속하지...

우리 지저분한 함선에 있는 사람들, 이 구역 어디선가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열 받아서 투덜거리며 사기당했다고 분노할 거야. 오늘 열여섯 명의 피곤한 얼간이들이 굶주린 외계 군단을 쓸어버리는 걸 보지 못해서 말이지!"

"우와아아!" 드루 로저(얼어붙은 젠 행성에서 십 년 동안 파업을 했던)가 함성을 내질렀고, 다른 이들도 웃고 박수를 쳤다.

그리퍼드의 차분한 목소리가 흰둥이의 통신기에서 흘러나왔다. "협곡 전체에 대한 3-D 모델이 준비됐습니다." 흰둥이는 바로 모델을 불러와 협곡을 살펴보았다. 깜박거리는 구불구불한 협곡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몇몇 지점을 강조해 전 부대원에게 보냈다.

"보이나? 생각한 것보다 더 쉬울지도 몰라."

몇몇 대원이 더 동조하는 소리를 냈고, 흰둥이는 누군가 "죽이는데."라고 하는 것까지 들었다.

"투덜이, 우리 수중의 폭발물로 입구를 넓힐 수 있나?"

"그보다 훨씬 더한 것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장님. 저 개자식들을 어떻게 여기로 데려오죠?"

흰둥이는 한숨을 쉬고 다시 가족을 생각했다.

"난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군..."

*

그들은 밤새 차근차근 공들여 일했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건설로봇들은 그런 일에는 익숙했다. 방향이 단 1 센티미터만 빗나가도 조종사가 죽을 수 있는 새총식 발사대를 만든 적도 있다. 신소재 강철 장갑이 1 킬로그램만 더 무거워도 함선이 산중턱에 처박힐 수 있고 1 킬로그램만 더 가벼워도 히드라리스크에게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장비 목록을 작성한 적도 있었다.

동틀 녘에 공격받고 있는 야영지를 정찰하던 흰둥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흰둥이가 자기가 간다고 말하자 나머지 건설로봇들은 모두 마뜩잖다는 눈치였지만, 흰둥이는 고집을 부렸다.

그리퍼드는(가증스러우면서도 다행스럽게 끝까지 과학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흰둥이가 연례 T-280 장애물 이어달리기에서 3년 연속 우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건 제치고라도, 흰둥이는 이 임무에서 자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총알받이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조용해 보이는군.

거대한 균열과 끈적끈적한 점막을 제외하면, 야영지는 그들이 첫날 건설했을 때와 거의 비슷해 보였다. 평화롭고, 인적 없고.

이걸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약이라도 팔아야겠군. 흰둥이는 키득거렸다.

흰둥이의 웃음소리에 투덜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통신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대장님?"

넛을 놓고 있었군. 집중해야지. 흰둥이는 정신을 차리고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투덜이. 거기 상황은 어때?"

"장비의 태양광 재충전이 끝나 갑니다. 천둥이 치기까지 1 분 남았어요."

오늘이 그날인가, 흰둥이는 생각했다. 망할, 총알은 이미 넘치도록 피했다. 두 번의 전쟁, 수도 없고 법도 없는 세상들. 다른 녀석들을 구할 수 있다면...

"모두 행운을 빈다!" 흰둥이가 크게 외쳤다.

"30 초 남았습니다, 대장님."

하지만 이게 끝이라면... 흰둥이는 손을 뻗어 제어판을 두드렸다. 보안경이 나지막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대장님?!"

"괜찮아, 투덜이." 거드라크의 건조한 바람이 연인의 입맞춤과도 같이 조종석으로 불어 들었다.

흰둥이는 어깨를 움츠려 벨트를 벗고, 깃털 같이 와 닿는 바람결을 음미했다. 달콤하고 건조한 공기와 따뜻한 햇볕을 음미했다. 그는 두 아들을 생각했다. 착한 아이들이야. 아니, 이제 어엿한 남자지. 머리도 좋고.

"15 초 남았습니다."

그는 린앤을 생각했다. 벌꿀 색의 긴 머리와 늘씬한 구릿빛 몸. 변경인 초스 출신이었다. 대학에서 그는 멋 부리기 좋아하는 도시 여자를 사귀다가, 17 학기의 방학에 그 여자를 버리고 린앤을 택했다.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린앤을 본 적이 없었는데, 같은 골목에 살던 무릎이 지저분하던 말괄량이 사막의 천사로 자라나 있었다. 용설란과 셀비어, 그리고 그 둘보다 더 좋은 무언가의 향기가 나던 린앤.

내 평생 최고의 선택이었지. 흰둥이는 생각했다.

"5..."

그는 폐를 한껏 부풀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4..."

그는 평원을 가로질러 달렸다...

"3..."

단층을 찾고...

"2..."

변수를 처리하며...

"1!"

그는 교합기를 거머쥐었다.

"건설로봇 충전 완료, 대기 상태 진입!"

그는 촉각 감지기를 통해 드릴이 도는 걸 느꼈다.

"준비됐습니다, 대장님!"

그는 손을 들어 바람에 쓸려 건조해진 목을 만졌다.

"대장님?"

흰둥이는 제어판을 두드렸다. 보안경이 탁 닫히고—

흰둥이는 땅속 깊숙이 드릴을 밀어 넣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저글링들이 다리를 꿈틀거리며 밀물처럼 밀려 나왔다. 놈들이 한꺼번에 쇠썩거리는 소리가 귓전에 닿은 후에야 흰둥이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망할."

그는 뒤로 돌아 추진기를 켜고 악마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이 줄달음쳤다.

흰둥이는 전날 들어갔던 협곡의 입구를 지나쳐서, 절벽을 따라 반 킬로미터 더 내려간 곳에 있는 더 넓은 입구를 택했다. 그들은 그리퍼드가 보낸 원격 계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양쪽이 절벽인 협곡의 반대쪽 출구가 몇 미터 후에 급격히 넓어진다는 걸 알아냈다. 전술 분대 B에게 병목 지점을 변경하는 일은 애들 장난이었다.

아늑하고 따뜻한 곳이길, 흰둥이가 생각했다.

첫 번째 저글링이 그가 있는 곳까지 뛰어오는 데는(린앤이 봤다면 '꿈무니가 빠져라'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약 3 분이 걸렸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융합 절단기를 숙 휘두르자 저글링은 두 동강이 난 채 그 자리에 나뒹굴었고, 몇 초 후 밀려든 개떼에 짓밟혀 곤죽이 되었다.

그러나 그 바람에 흰둥이는 조금 뒤쳐졌고, 그 작은 개자식들은 빌어먹게도 엄청 빨랐다.

그는 집게로 저글링을 한 마리 집어서 투포환 던지듯 앞으로 던졌다. 앞으로 나가면서 발로 뭉개 버리려고 한 것이었다.

그때 저글링 한 마리가 왼팔의 구동 장치에 이빨을 박았고, 흰둥이는 놈을 지저서 육포로 만들었다. 그 사이에 저글링 한 마리가 그의 등에 매달렸다.

흰둥이는 무게 때문에 모터가 느려지는 걸 느꼈다. *좋지 않아. 이놈을 떨쳐 버려야 돼.*

흰둥이는 오른쪽에 붙은 제어 상자의 뚜껑을 뜯고, 재빨리 열선을 컷다. T-280의 외장이 전류로 하얗게 달아올랐고, 저글링은 꽤액 소리를 지르더니 줄행랑을 쳤다.

흰둥이는 계기판을 확인했다. 남은 연료는, 추진기를 쓰지 않으면 딱 일을 마칠 수 있을 정도였다. *두 번 써먹을 순 없겠군. 숨 돌릴 여유를 만들어야겠어.*

야영지를 떠날 때 짐을 많이 챙기지는 않았지만, 폭발물 약간과 자투리 도관 몇 미터는 가지고 왔다.

공사에 재료를 대부분 써 버렸지만, 딤과 투덜이는 얼마 안 되는 남은 재료로 깜짝 선물을 세 가지 만들었다. 흰둥이는 지금 그 깜짝 선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길쭉한 물건을 하나 꺼내 들고 제어판을 두드려 작동시켰다.

까다로운 일이었다. 장애물이 너무 크면 개떼가 추적을 포기할 것이고, 너무 작으면 그를 집어삼킬 것이다. *똑같은 상황의 축소판이로군.* 흰둥이는 생각했다. "엔지니어링에서는 작은 부분이 중요하지."

대학 때 한 교수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물론 교수님은 적대적인 외계인을 상대하는 경우를 이야기한 건 아닐 것이다. 아마 연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나 연례 기술 설명서를 출간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한 말이겠지.

그것보단 차라리 이게 낫지.

흰둥이는 고개를 돌려 개떼를 바라보았다. *아닌가? 저놈들 거짓말 안 보태고 일 톤은 되겠어.* 그는 아버지가 행운을 빌 때 수없이 했던 것처럼 바닥에 침을 뱉고는, 투덜이의 장난감을 들어 밀려오는 벌레 떼를 향해 던졌다.

츄! 충격 유탄이 작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저글링을 몇 마리 날려 보냈다. 나머지 놈들이 피에 굶주려 쉼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럴 수가! 효과가 있잖아! 덕분에 그는 거리를 조금 벌렸지만, 저글링 때는 전혀 흥미를 잃은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성질을 툇군 모양인데. 좋지. 안전한 적보단 날뛰는 적이 좋잖아.*

흰둥이는 협곡에 도달해 있었고, 저그 무리가 좁은 공간에 맞춰 전열(그런 게 있다면 말이지만)을 좁히는 동안 거리를 조금 더 벌렸다.

흰둥이는 융합 절단기로 두 마리를 죽이고, 마침 가까이 있던 뾰족한 돌로 한 마리를 꿰뚫었다. 하지만 나머지 무리가 다시 거리를 좁혀 오고 있었고, 저글링이 또 등에 매달려 그를 짓누르게 되는 상황은 감수할 수가 없었다. 그는 두 번째 유탄을 준비했다.

춤! 움! 움! 움움움. 폭발음은 협곡 벽을 따라 멀어지면서 비현실적인 울림을 일으켰다.

흰둥이는 뒤를 돌아보았다. *좋지 않군.* 이번 폭발에는 놈들이 별로 주춤하지 않았고, 몇 마리는 양옆의 절벽을 타고 올라 다시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아직은 숨 돌릴 여유가 있었다.

흰둥이는 원격 계측 데이터를 확인했다. 망할. 아직도 갈 길이 먼데 깜짝 선물을 벌써 두 개나 써버렸다.

내가 여기서 살아 나가면 녀석들이 장애물 경주를 없애 버릴지도 모르겠군.

그는 아까 열선을 쏜 후에, 전원을 아끼기 위해 쾌적 공조 장치를 꺼둔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 안이 바깥만큼이나 더웠고, 바깥보다 훨씬 습했다. *아까 그 말은 취소해야겠군. 내가 여기서 살아 나가면 전술 분대 하나에게 통째로 땀 제거 섬유 개발을 시키겠어.*

또 저글링 한 마리가 달라붙었고, 흰둥이는 가까스로 드릴을 놈의 몸뚱아리에 박았다. 하지만 이미 그 벌레가 오른팔 제어 회로를 통째로 뜯어낸 후였다.

이제 거의 다 왔다. 굽이를 돌아 마지막 내리막길이 눈에 들어왔다. 성공이다!

바로 그때 첫 번째 저글링이 그의 등을 덮쳤다. 그는 욕을 내뱉고 비틀거리며 옆으로 한 발짝 딛고는, 그 개자식을 협곡 벽에 대고 밀었다. 하지만 그러느라 속도가 늦어졌고,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에서 뛰고 있던 저글링을 감박했다. 그가 미처 세 발자국도 떼기 전에 벌레 한 마리가 덤벼들었다.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가.

그는 몸을 흔들고 아직 작동하는 T-280의 왼팔을 휘둘러 한 놈을 떼어 냈지만, 그러자 한 마리가 더 달라붙었다. 놈들은 낮처럼 생긴 다리로 플라스틱 강철로 만들어진 그의 보안경을 찢러댔다. 모터가

탈탈거리기 시작했고, 속도가 급격히 감소했다. 바로 몇 걸음 앞에 목표 지점이 있는데 도달할 수가 없다.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몇 초면 나머지 무리가 그를 덮칠 것이었다. 아까처럼 열선을 사용할 수도 없었다. 그러면 돌덩이처럼

제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추진기를 켜 연료도 없었다.

보안경이 거미줄을 그리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기회는 한 번뿐이야. 미친 짓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개떼가 병목 지점을 지나가게 해야 했다.

채강! 저글링 다리 하나가 보안경을 뚫고 들어왔고, 다리가 어깨 깊숙이 박히자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흰둥이는 고통을 내지르고 이를 악물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는 멀쩡한 쪽 팔로 버튼을 두드렸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면서, 등에 매달려 있던 마지막 충격 유탄이 팽! 하는 소리와 함께 터졌다.

고통.

어깨에 고통이 느껴졌다.

죽지 않은 것이다.

흰둥이는 눈을 떴다. 폭발의 여파로 장비와 함께 협곡 반대편에 떨어진 것이었다. 어깨가 아픈 것은

아직도 박혀 있는 저글링 다리 때문이었는데, 몸뚱아리는 폭발로 인해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그는 산산조각이 난 보안경 사이로 앞을 바라보았다.

저그 무리 전체가 병목 지점으로 몰려들면서 똑바로—

나한테 오고 있잖아.

흰둥이는 다시 한 번 욕을 내뱉고는 제어판을 두들겼다. T-280 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한쪽 다리의 구동

장치는 모조리 박살이 나 있었다. 상관없다. 아직 다리 하나, 팔 하나가 있으니까. 그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투덜이를 비롯하여 모든 부대원들이 통신기 너머에서 소리를 치고 있었다. "제길,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그는 움직였다.

그는 비틀비틀 휘청휘청 다리를 질질 끌며 가까스로, 그야말로 가까스로 투덜이의 견인 사슬이 매달려 있는 절벽 쪽으로 가서 집게로 사슬을 붙잡았다. 투덜이와 그리퍼드가 그를 하늘로 끌어올리자, OFFM 을 통해 당김이 느껴졌다.

그리고 귓가에는 소리가 들려왔다. 꿀벌로 가득한 화물 열차가 교각 접합부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 수백 마리의 저글링이 저 아래 협곡 벽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저글링 떼는 딱 알맞게 깎인 절벽을 타고 올랐다. "저글링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표면도 탈 수 있죠."

워너가 말했다. "거의요."

그리고 투덜이가 스위치를 켜고 절벽에 정확하게 배치된 폭발물을 작동시키자, 그에 따라 병목 지점이 산뜻한 굉음, 먼지 구름과 함께 사라지자, 저글링 떼는 쉼 소리를 내질렀다. "식은 죽 먹기." 투덜이가 말했다.

그리고 저글링들은 죽기 시작했다.

정교하게 짜 맞춘 돌 바닥이 발밑에서 꺼지자, 날카롭게 손질한 도관 말뚝이 꽃힌 구멍으로 떨어져 죽어 갔다.

매끈하게 깎은 바위 기둥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비탈을 우아하게 굴러 떨어지자, 그 밑에 깔려 질펀한 반죽이 되어 죽어 갔다.

모래 구덩이, 함정, 올가미, 돌더미에 의해 죽어 갔고, 머릿수가 줄고 난 후 마지막 몇 마리는 배고프고 피곤하고 성질 더러운 영감 열다섯 명의 팔 끝에 달린 모터 구동 적하용 집게에 뭉개졌다. 흰둥이는 그들이 뒤처리를 하게 두었다. 그 정도 보람은 느낄 자격이 있는 녀석들이니까.

수송선이 거드라크의 희박하고 건조한 대기를 가를 때, 해서웨이 소위는 바짝 긴장해 있었다. 착륙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다. 그의 얼마 안 되는 경력에도, 이미 이보다 훨씬 척박한 세상에 착륙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또 성난 타락귀의 아귀를 쳐다보며 가우스 소총의 방아쇠를 당겨 병사를 여남은 명이나 구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도, 건설로봇 조종사들을 대할 때면 아버지의 전동 공구를 몰래 가지고 놀다가 들킨 아이 같은 기분이 된다. 그래서 다른 임무를 맡길 원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짐 레이너가 하라면 해야 하는 것이었다.

수송선은 암전히 섰고, 해서웨이는 현장을 시찰하러 나섰다. 그는 눈을 깜박였다. 현장에는 건설로봇 조종사들이 흩어져 있었다. 상자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고,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모자로 눈을 덮고는 뚜껑을 연 채 T-280 조종석에 누워 낮잠을 자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해서웨이의 시선을 끈 것은 그게 아니었다. 야영지 전체가 장대에 꽂힌 저글링 해골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다. 부서진 것도 있고 금이 간 것도 있고, 건설용 접착제로 대충 붙여 놓은 것도 있었다.

해서웨이는 그 해골들과, 건설된 지 얼마 안 된 구조물에 나 있는 발톱 자국을, 그리고 고철 조각으로 때워서 고쳐 놓은 T-280 들을 바라보았다. 아니, 저 구동 장치를 감싸고 있는 건 맥주 깡통인가?

“오래 걸렸군, 친구.”

입을 연 사람은 “투덜이” 소로였다. 해서웨이는 임무 설명에서 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고 대신 빨리 쳐다보았다. 투덜이는 기다리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킬킬거렸다.

“아, 저거? 저그랑 문제가 좀 있었거든.”

해서웨이는 말문이 막혔다.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다시 열었다가 다물었다. 두 번 더 그랬다. 마침내 그는 말문을 열었다. “어떻게? 그거... 운이 좋았군요... 그러니까... 아... 처음 할당량은 400 꾸러미였는데, 그 비슷한 양이라도 캬습니까?”

투덜이가 웃었다. “당연히 아니지.”

해서웨이는 나지막히 끄 하는 소리를 냈다. 레이너가 뭐라—

“800 꾸러미 캬어.”

가까이 있던 흰둥이가 씩 웃었다.

짐 레이너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대답했다.

“들어오시오.”

흰둥이가 들어갔을 때, 레이너는 전술 자료를 암울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료를 덮고 눈을 문질렀다. “흰둥이, 어서 오게. 팔은 좀 어떤가?”

흰둥이는 공구 상자를 문 옆에 내려놓고는 방으로 들어섰다. “새것 같습니다. 로리가 실망했지요. 외팔 엔지니어링에 대한 디지털 책이라도 쓸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농을 던졌다.

레이너가 씩 웃었다. “안타깝군. 전장에서 직접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전장은 지겹게 많이 봤습니다, 사령관님.”

“우리 둘 다 그렇지. 무슨 애길 하러 왔나?”

흰둥이는 심호흡을 하고 열 단어를 말할 준비를 했다. 열 단어가 넘어도 별 수 없지만.

“건설로봇 특수 엔지니어링 부대는 실적이 동일한 규모의 자치령 부대의 일곱 배입니다.”

“여덟 배지.” 레이너가 대답했다. “최근 실적을 계산했거든.”

흰둥이는 슬픈 듯이 웃었다. “그렇군요. 부대원들이 그 바위 위에 있는 동안 발레리안 왕자와 아주 막역해졌겠군요.”

레이너가 숨을 훑 들이쉬었다. “그래. 내가 좀 무리한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덕분에 전세가 뒤집혔다네! 그러니 만약 자네가 온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찾으려 합니다. 그런 방법에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엔지니어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요. 저희는 사령관님을 믿습니다.”

“고맙—”

흰둥이는 말을 계속했다. “그래도... 실적을 보십시오. 저희가 자치령의 여덟 배를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령관님이 원하는 곳 어디에나 길이든 다리든 건물이든 만들지요. 그럴 수 있는 건 저희 부대원이 모두 성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역 전역에서 서로 죽이기 바쁜 머리에 피도 덜 마른, 새파란 강아지가 아니라요. 가족이 있는 성인 말입니다.”

“흰둥이, 가족이 없는—”

“제 이야기 덜 끝났습니다. 우리는 가족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적을 내는 게 아니고, 가족 걱정 때문에 내는 겁니다. 그게 전투 자극제보다도 더 큰 의욕을 불어넣어 주지요. 하지만 거기엔 대가가 있습니다.”

흰둥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원격 콘솔을 꺼내 들었다. “이건 제 관리 하에 있는 모든 기계의 관리 일정입니다.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지요. 제 지휘 하에 있는 모든 병사의 명단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관리해 줘야 하지요. 이건 근무 일정입니다. 사령관님이 함교에서 작성하시는 항해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번에 다섯 이상이 쉬는 일은 없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거나...”

그는 콘솔을 레이너에게 내밀었다.

“그게 안 된다면 이 부대를 이끌 사람을 새로 뽑으십시오.”

짐 레이너는 카우보이의 피곤한 눈 너머에서 흰둥이를 바라보았다. 조용했다. 두 사람의 머리 위 갑판에 뭔가가 떨어져 부딪혔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레이너가 콘솔을 받았다. “알겠네.”

흰둥이가 그의 눈길을 되받았다. “알겠습니다.”

흰둥이가 뒤돌아 나가려 했을 때 레이너가 덧붙였다. “한 가지만 더.”

“뭐니까?”

“내가 자네한테 작업을 시킨 그 교각 건설 차량 기억나나? 그 차량을 처음으로 써먹을 임무가 생각났네.”

흰둥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비밀 기지를 건설하는 건 어떻겠는가... 차 행성에?”

흰둥이는 돌아서지 않고 씩 웃음을 짓고는 공구 상자에 손을 뻗었다.

끝